

종립학교를 가다 <끝>

(17)은석초등학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은석초등학교는 1963년 현 서울대학병원 자리에서 개교해 65년 동국학원에 편입, 76년 현 위치로 교사를 이전했다. 38년간 배출한 졸업생은 8천여명. 이들은 정치, 경제, 법조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은석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은석초등학교의 교육시설을 보면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을 실감케한다. 그만큼 공부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정도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갯벌·농장 찾아 생명의 소중함 배워요”

“잠재능력 개발이 교육 핵심”



이무열 교장

“21세기 새 시대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덕적, 창의적, 자율적인 인간 육성을 위한 기초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선재동자들의 자상한 아버지 이무열 교장은 불심을 통한 심성교육이 기초 학력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어린 아이들은 기본 예절과 질서 의식이 부족해졌다. 그래서 그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는 자타이리의 정신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또한 학생 개인의 소질과 재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본적인 학습지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기 적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은석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은석에서만 30년을 근무한 이 교장에게는 조그마한 소망이 있다. 불교유일의 초등학교에서 병설 유치원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 그래서 학교를 떠나기 전에 병설 유치원을 만들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그는 또 불자들에게 어린이 포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하루 한가지씩 실천토록”

교법사실에서 김한기 교법사



매일 출근하자마자 법당에 들려 교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원을 세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김한기 교법사. 그는 학생들에게도 아침에 법당에 들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가지씩 정해서 하루동안 그것을 실천 하겠다고 부처님과 약속을 하라고 가르친다.

초등학생은 동적이다.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여기저기 뛰어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김 교법사는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고 재미를 느끼면서 자연스레 불교를 알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참선이나 교리를 가르치기보다는 백유경에 나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이야기식의 설법을 한다든지 레크리에이션 같은 동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법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파라미타 연구위원이자 25년간 보이스카웃 활동을 하며 청소년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한 김 교법사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린이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법회교재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교계 유일의 초등학교기관인 은석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의 전문화와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각 학급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공립 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에어컨, 생수대 등이 설치되어 있고, 학습기자재로 43인치 대형 텔레비전과 비디오, 컴퓨터 등을 비치해 멀티클래스(Multi-Class)를 실현했다. 단순히 시설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도 학생들이 공부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멀티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부친아가 없다. 그래서 기초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영어, 컴퓨터, 예체능 교육에 역점을 둔다. 은석초등학교는 전교생에게 매주 2시간씩 생활영어, 2학년부서는 한자, 4학년 때부터는 컴퓨터를 가르친다. 학생들은 영어, 컴퓨터를 배우며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음악은 기악과 성악으로 나누어 교육하는 등 특성화된 예체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방과후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특기 적성교육에 참여해 숨겨진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있다. 특기 적성 동아리만도 수학, 과학, 영어, 미술 등 교과 과목과 바이올린, 빙상, 수영, 서울시 답사반 등 20여개. 학생들은 저마다 재미를 느끼는 동아리에

전국 탐방 체험학습 ‘백미’

63년 개교...8천여명 배출

‘멀티클래스’ 첨단 수업 실현

특기 살린 동아리 20여개

가입해 전담 교사의 지도 하에 구슬땀을 흘린다. 특히 학교측에서 은석 예술제, 체육대회, 가족 테니스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학생들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창의성을 높이고 있다. 학부모들에게 학교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

학교 공부는 대부분 교실에서 선생님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다.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배우는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쉽게 잊어버린다. 그러나 은석은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그야말로 생생한 산공부를 시키고 있다.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학습 주제를 정해 문제해결방법을 찾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별 및 학년별, 도농간 교류 학습 등으로 나눠져 실시되고 있다. 개인별 체험학습

은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학부모와 함께 문화탐방이나 집안 일들을 주제로 이루어진다. 또 학년별 체험학습은 충북 증원 문화권 답사, 강화도 바닷가 체험 등의 테마로 실시. 학생들은 매년 전국을 돌며 현장체험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체험 학습 활동과정을 통해 협동심을 키우는 것은 물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친구들간의 우정을 쌓고 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종교를 수업 시간에 가르칠 수 없다. 대신 은석초등학교에서는 연화어린이회를 중심으로 종교 활동이 왕성하다. 연화어린이회는 회원만도 250명. 모두 모여서 법회를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목 금·토 3일로 나누어 법회를 보고 있고 가족수련법회, 수계법회, 수련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연화 어머니회와 교직원들도 매월 합동 법회를 병행하며 불심을 키우고 있다.

과거 중학교 입시가 있었던 시절, 한 반에 25명정도가 경기중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우리나라 최고의 사립 초등학교로 명성을 떨쳤던 은석초등학교. 지금은 이사장 오 녹민 스님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708명의 어린 선재동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우며 은석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nia.com

은석의 자랑 도·농교류 체험학습

노랑·마곡 초등학교 결연... 산교육 펼쳐

은석만의 독특한 교육프로그램인 체험학습. 그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재미있어하고 기다리는 것은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이다. 은석초등학교는 경남 하동 노랑초등학교와 충남 공주 마곡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은 은석초등학교 4, 5학년학생들이 이들 자매학교를 각각 방문하고 또 자매학교 학생들을 서울로 초청해 나들이를 하는 행사다. 지난 8월 28일 은석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공주 부엉이를 찾아서’라는 테마로 마곡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마곡사, 부여박물관, 고란사, 낙화암 등 백제 문화를 답사하고 김매기, 고추 옥수수 따기 등 농



장체험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또 5학년 학생들은 노랑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임진왜란 격전지를 탐방하고 갯벌에서 조개를 잡는 등 현장체험을 다녀왔다. 도시에서만 자란 아이들에게 이같은 합동 체험학습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양정 청소년수련관 만화축제 열어

25~28일 부산시청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은 25일부터 4일간 부산광역시청 야외무대에서 '2001년 청소년 만화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만화동아리 부스전, 만화 포스터 전시회, 만화영화 상영회, 만화작품, 만화체험

실, 만화작가와와의 만남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가 끝난뒤에는 부산시 교육감상을 비롯해 광역시장상 등 푸짐한 시상식도 마련된다. 또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과 애니메이션 상영회 등도 개최된다. www.power1318.org (051) 868-0750

청소년 단신

선덕사 유치원 사진전

광주 선덕사 유치원은 25일까지 '숲속의 아이들, 선덕사 유치원 사진 전시회'를 마련한다. '숲속의 아이들 생명사랑, 자연사랑'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게임동 E마트 앞 두산 타운 사거리, 두암 주공4단지 건너편 등에서 열린다.

동아리 '훈' 댄스대회 대상

목동청소년수련관 댄스 동아리 '훈'은 7일 '양천구 유스 챔피언 댄스 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대상을 차지했다. 현재 대부분 고등학교 2년생들이 '훈'의 멤버들은 중학교 2년때부터 활동해 왔으며, 일부는 방수곡 백댄서로 활약중이다. 목동 청소년 관장 경륜 스님은 '댄스 동아리 훈'은 목동 청소년수련관의 동아리 활동이 정착화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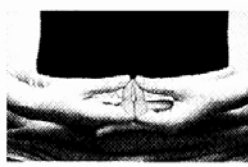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⑨

•수인법-상품•

수인법을 수련할 때에는 손의 위치와 형태가 올바르게 되도록 정확하게 움직여야 한다. 또한 손의 각도와 손가락의 각도가 옳고 가 되도록 최대한 손과 손가락에 힘을 모아 행한다. 수인법 하나하나가 완벽히 이루어졌을 때 다른 형태로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움직인다. 이러한 변형의 조화는 꾸준한 연습을 필요로 한다.



엄지와 검지 붙이고

남은 손가락 곧게 펴

먼저 상품부터 수련을 시작한다. 상품의 자세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자연스럽게 붙이고 나머지 손가락을 곧게 뻗는 형태다.

1.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단전에 기를 모은다.
2. 상품의 기본 자세에서 오른손과 왼손의 검지손가락 등을 직각으로 서로 맞붙이고, 양

손의 손등도 직각이 되게 한다. 나머지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포갠다. 상품상생의 자세다. 3. 상품의 기본 자세에서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당겨 마주보게 한다. 상품상생의 자세다. 4. 마주보고 있는 두 손 가운데 한 손을 밖으로 돌려 아래로 향하게 하고, 손목과 손목이 맞닿게 한다. 상품상생의 자세다.

'마음고요 禪房'

마음고요 선방의 명상 프로그램들은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정목스님과 함께하는 '나를 찾는 명상'
- * 매월 음력 초사흘 오전 10시 30분 : 정거법회

강남구 신사동 4거리(전철 3호선 신사역 5번 출구)

☎ 02) 548-0218 FAX 02) 548-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똑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